

지역분류	미주 / 미국
보도일/기관명	2017. 2. 16.(목) / FierceWireless
제 목	U.S Cellular, 600MHz 주파수 경매에 3억 2,700만 달러 입찰가 제출
출처(URL)	<a href="http://www.fiercewireless.com/wireless/u-s-cellular-submitted-bids-for-327m-worth-spectrum-fcc-s-600-mhz-incentive-auction">http://www.fiercewireless.com/wireless/u-s-cellular-submitted-bids-for-327m-worth-spectrum-fcc-s-600-mhz-incentive-auction</a>

**【 개 요 】**

- o FCC의 600MHz 대역 주파수 인센티브 경매에서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무선 네트워크 사업자인 U.S Cellular는 최소 3억 2,700만 달러의 입찰가를 제출했다고 밝힘

**【 주요내용 】**

- o U.S. Cellular는 지연되고 있는 FCC의 주파수 경매의 할당 단계 완료에 따라 600MHz 대역 구매를 위해 최소 3억 2천 700만 달러의 입찰가를 미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함
  - U.S. Cellular는 2016년 6월 최소 1억 4,300만 달러의 선급금을 제외한 총 약정금액을 2017년 2분기 내에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사가 보유한 현금 및 신용협정 등을 통한 대출을 통해 지불할 예정임
- o FCC 인센티브 경매 4단계에서 전방 입찰은 지난 주말에 종료되었으며 입찰자들은 TV 방송사의 주파수에 196억 3,000만 달러를 제시함
- o 그러나, U.S Cellular의 제시는 각 시장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경매가 할당 단계로 가는 시점에서 다소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보여짐(이전 입찰은 포괄적인 대역에 국한되었음)
  - FCC는 낙찰자를 앞으로 몇 주간 공개하지 않고 휴지 기간은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고 밝힘
  - 이런 규칙은 U.S Cellular와 같은 입찰자가 결과를 논의하거나 주파수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
  - U.S Cellular의 대변인은 “SEC 규정에 의해 필요했다”라고 언급함
- o Verizon, AT&T 및 T-Mobile 등은 이번 경매에서 수십 명의 입찰자 중의 하나로(Sprint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음), Comcast, Dish Network 및 소규모 무선 통신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음
  - 기관 거래 및 중개 서비스 전문 글로벌 금융 서비스 업체 BTIG LLC의 Walt Piecyk 분석가는 “사용 가능한 주파수의 3% 만이 남아 있다” 라고 트위터에서 언급함
- o U.S. Cellular는 지난 '16년 3/4분기 기준 미국 전역에서 5번째로 큰 무선통신사업자로 약 5백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음

**↑ 목차로 이동**